

고려시대 공적·사적경호의 특성과 현대경호와의 비교연구*

이성진**

〈요 약〉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공적경호, 사적경호, 금군, 견룡, 도방, 별초군

* 이 논문은 2013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30028)

**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sjlee@hoseo.edu

목 차

- | |
|--|
| I. 서 론
II. 고려시대 금군의 형성과 공경호적 특성
III. 경대승 도방의 사경호적 특성과 해체
IV. 최충현 도방의 거듭남과 사경호적 위력
V. 고려시대 공적·사적 경호와 현대경호학적 의미
VI. 결 론 |
|--|

I. 서 론

1. 연구사 및 연구의 동기

고려는 왕건에 의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굳건한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나, 초기의 신라와 태봉국의 제도를 따르던 과도기를 벗어나 고려국가의 새로운 왕국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제4대 광종의 과거제도 실시를 거쳐 제6대 성종에서 제8대 현종에 이르는 동안에 그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제도 또한 제4대 광종 때에 순군부를 군부로 개칭하여 중앙귀족을 통제하고, 성종 때에 병제개혁을 통하여 비로소 지방의 군사세력을 통제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왕의 친위대라 할 수 있는 군사기구는 성종~목종에 걸쳐 재편성된 중앙정규군 2군 6위였다¹⁾. 이와 같이 6부의 하나였던 병부가 2군 6위의 조직으로 개편되어 군정을 장악함으로써 지방은 주현군이 치안을 맡았고, 북쪽의 동서 양방에는 병마사를 두어 관장하였다(진단학회, 1980: 113-128).

1) 2군6위는 성종조에 개편된 신군제로서 목종조에 완성되었다. 2군은 응양군, 용호군이며 6위는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 천우위, 감문위로 이로서 고려의 중앙군이 완성되었다(진단학회, 1980: 127).

고려 왕실은 새로운 왕권의 창출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한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경호, 즉 호위조직을 만드는 등 신변보호에 주력했다. 송인주(2002)는 금군(禁軍)이라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군사조직이 성종에 이르러 시위군의 정비작업의 결과로 군사조직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금군의 핵심 부대인 견룡은 국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신변을 호위하던 시위군의 하나로서 대개 국왕을 보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나아가 수도의 방어를 맡았던 부대로 알려져 왔다.

정정현(1992)은 고려전기 2군 6위제에 관한 연구에서 견룡군은 왕이 행차할 때에 그 대열 속에서 말을 부리는 군사들이었음을 밝히고 임금이 탄 말을 부렸다는 사실은 그와 가장 가까워서 늘 행동을 같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기에 견룡이 맡은 임무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낙진(1994)도 견룡이 설치된 경위와 그 임무에 대하여 주목하여 견룡은 왕의 행차 시에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신변을 호위하는 시위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궁성 안에서도 국왕과 근접한 위치에서 숙위 임무를 담당했다고 하였다.

송인주(1995)는 고려시대의 견룡군은 국왕의 측근에서 활약한 금군을 구성한 개별 호위대로서 당시 친위군 강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그는(1997) 또한 금군이란 군사조직의 내부에 있는 견룡, 공학군, 중금, 도지, 백갑, 순검군, 내순검군 등과 더불어 간수군, 위숙군, 검정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견룡군에 대한 연구는 2천 년 대에 들어서서 금군 연구와 관련지어 계속 이어졌다. 김낙진(2002)은 국왕의 시위대였던 금군의 실체를 밝히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보이는 금군의 소속부대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지양하고, 금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무신들의 쿠데타에 주목함으로써 국왕과 가장 가까운 그 실체를 확인하였다. 그는 금군에 대한 인식을 왕에 대한 충성도에서 찾았다. 이러한 인식을 참작해 볼 때에 정치적 행보에는 강력한 호위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이상철(2003)의 고려시대 견룡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서 견룡이 국왕과 왕실의 시위군과 의장대로서의 임무와 실질적인 궁궐수비의 임무를 지닌 부대였지만, 그 밖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기도 했다고 하였다. 또 견룡과 금군의 임무에 관한 사적 고찰(이상철, 2004)에서 견룡은 국왕의 행차뿐만 아니라 궁궐 내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국왕은 이들과 늘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충성심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장받으려 했다고 하였다. 이는 고대국가의 성격이 국왕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행해지고 이루어지므로 국왕에 대한 충성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

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그 성격을 밝혔다. 김낙진과 이상철의 연구는 왕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강력한 호위를 보장받으려 하였으며, 이러한 호위를 받는 정치적 배경을 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였다고 볼 때 상호보완적인 주장으로서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민병하(1973)는 무신집권 초기의 중방(重房)의 역할에 관하여 무신 쿠데타 직후 무신들의 전권을 휘두르는 대표적인 기구였으나, 최 씨 정권 이후 무력화된 상황, 그리고 교정도감이 최 씨 정권 권력 행사의 중요한 직책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사적 경호로 이루어진 체제가 어떻게 공적경호에 의해 유지되고 또 사적 경호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해답을 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장규(2010)는 한국 경호사에서 고려 무신란 전후의 경호제도와 관련지어 무신집권시대의 경호에 대하여 경호사의 범주 내에서 도방 외에 서방, 마별초, 삼별초에 대한 시대적 의의를 언급하였다.

전태인(2005)은 고려시대 무예활동을 통한 친위조직 연구에서 무예의 체제 안에서 무신집권기의 경호를 사경호로 규정하고, 경대승과 최 씨 정권의 도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최충현의 도방 창설과 재건에 대하여 규모만 달라졌을 뿐 동질의 활동으로서의 사적경호로 간주하여 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러한 연구에 이어 이민형(2007)은 고려 무신집권기 경호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무신집권 당시 무신들의 호위조직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경호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민간경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 내용들을 살펴볼 때, 2000년대 이후 고려시대 금군(健軍)과 무신집권기의 호위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 주요 쟁점은 호위제도의 전통적 왕실 경호부대인 금군과 무신집권기의 무신 집권자의 실제적 경호 기구인 도방의 성격적 대비와 이에 관한 현대경호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현대의 공적경호와 사적경호(민간경호)의 구분과 관련하여 고려시대의 경호를 분류해 본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현대경호와의 대비나 비교적 관점으로 보아도 현대 경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려시대의 역사적 맥락

에서 이를 종합하여 현대경호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고려시대 공적·사적 경호의 특성과 현대경호와의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공적경호와 사적경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군(鎭軍)과 무신집권기의 도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려시대 호위제도의 실제적 경호기구인 금군(鎭軍)과 무신정권 집권자들의 신변 안전을 책임졌던 도방, 서방, 별초군을 비교, 고찰하여 얻어진 교훈을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유지와 현대경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과 논문을 참고하고, 현대경호경비의 이론을 도입하여 호위제도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 및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고려의 공적경호(公的警護)는 중앙군의 책임인 금군(鎭軍)이 담당하여 왕실을 호위하고 국왕 행차에 호송했던 역할을 주요 직무로 보며, 사적경호(私的警護)는 무신집권시대의 도방(都房)을 중심으로 최 씨 집안을 호위하고 요인을 호종했던 역할을 주된 임무로 보고자 함을 밝힌다. 그리고 공경호는 왕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화려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이에 비하여 사경호는 무인들의 집단적 세력으로 뒷받침되는 도방과 가병, 별초군(別抄軍)의 활동이 실질적이고 사적인 대우가 의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 특성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성격이 그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부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고려시대 금군의 형성과 공경호적 특성

후삼국 통일 후 고려는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였다. 국왕의 핵심기구인 시위군의 개편도 필수적 사업으로 떠올랐음은 물론이다. 왕의 신변 호위는 태봉국 시절 궁에 왕을 호위하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통일국가로서의 형평에 맞는 제도의 창출이 후대에 금군이라는 통합적 제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상 아래 사기들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자료의 미비로 말미암아 확실히 밝히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흔히 내군이나 친위군 등으로 별칭 해 오다가 금군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금군이라는 명칭은 고려사 병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중국의 군사조직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다.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근대로서의 금군은 이미 한대에서 그 용례가 처음 발견된다(송인주, 1995: 70-75)고 한다. 고려시대의 금군 역시 국왕 친위군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다만 그 명칭이 시위군, 근군, 숙위군 등으로 사용되었다. 금군이라고 가상하는 내부에는 각각 명칭과 임무를 달리하는 여러 계열의 단위부대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송인주는 중국 역대 병제상에 나타난 금군 관련 사료를 추출한 후 비교사적 시각을 견지하며 이들 자료를 고려의 금군 및 소속 부대들의 용례검토에 원용하여 그 유래와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친위군의 대체적인 편성 실태와 성격을 논급하였다. 고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지만 모든 제도가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채택되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점은 남게 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논자는 내군, 복갑, 시위군졸 등의 국왕 측근 군사력 양상을 토대로 금군의 제도적 성립시기를 검토하여 좋은 성과(송인주, 1997: 144)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금군(禁軍)의 공경호적 특성은 첫째, 그 형성 과정이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의 신변 호위는 태봉국 시절 궁에 왕을 호위하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통일국가로서의 형평에 맞는 제도의 창출이 확실히 밝히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태조가 활동하던 태봉국 시절의 영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군과 시위군졸은 고려 국초 국왕의 근접 호위와 관련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 태조의 집권 직후 내군경(內軍卿)이라는 관직이 임명된 것은 이 직위가 담당했던 임무가 왕의 군사력 운용과 통제에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금군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어느 왕조의 성립에서나 태조 때에 국가기강이 확립되기 어려운 것처럼 신흥국가 고려의 경우도 태조의 사후 왕위계승문제에서부터 분규가 시작되었다. 혜종(장자)~정종(차자)대에 외척의 분규가 일어나고, 제4대 광종(3자)에 이르러 안정되었다. 광종 때에 부분적으로 개혁이 시작되고 성종~현종 대에 이르러 전면적 개혁(진단학회, 1980: 90-113)이 이루어졌는데 최승로의 시위군졸 활약상과 제도 정비 또한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참작해 볼 때 태조 초기에 시작된 제도가 성종-현종 대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진화된 친위군 부대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금군의 국왕 경호체계가 상하의 엄중한 위계질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국왕이 친히 임하는 대소, 조회, 행사나 연회 때에는 위장들이 예하부대를 지휘하여 궁정에 정렬시키며, 오위도총부 이하 군무에 직책을 가진 자는 물론, 검사복 소속요원도 국왕의 시립하고 내금위, 별시위, 소속요원은 궁정의 섬돌 위에 정렬하여 시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사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청을 지키는 자 외에는 광화문 옆에 집결시켜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은 이동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군의 예하부대의 체계에 따라 역할과 임무 그리고 철저한 책임과 위치를 지정하고 빈틈없는 왕의 시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대의 대통령 경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전통으로서 이동시와 대기시의 구분 그리고 빈틈없는 경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역사적 자료로 인식할 수 있다.

왕이 행차할 때의 건룡과 상위부대인 금군의 호위체계를 보면 왕과 최측근에 1선 경호를 건룡이 담당하고 2선 경호에 중금, 도지, 백갑이 담당하고 제3호위의 순검군, 백학군이 함께 3중 호위를 함으로서 모든 금군이 하나로 뭉치고 협력하는 완전 경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김낙진, 2002: 77, 이상철, 송상욱, 2004: 77).

2군 6위의 중앙군이 부실해지기 전에는 주로 2군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2군이 해이해지면서 숙위 의무의 비중은 금군으로 대폭 옮겨가게 되었다. 따라서 궁성 안에서의 숙위는 건룡을 핵심으로 하는 금군의 중요한 의무가 되었다(이민형, 2009: 359). 건룡군은 고려시대 국왕의 측근에서 호위한 중요한 경호작용을 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나아가 수도를 방어한 부대로 성장하고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금군의 부상은 고려시대 왕실 경호의 전통을 계승하는 과정으로 공적경호(公的警護)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대승 도방 출현 이후에 드러난 사적경호(私的警護)와 대립되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군의 역사성과 전통성은 금군의 핵심부대인 건룡부대가 무신집권 이후에도 존속되고, 무신 집권이 끝난 후에는 더욱 더 근접한 위치에서 왕을 호위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방이나 별초군에 비하여 보다 항구적이고 본질적이며 시대가 변화하거나 혹은 제도나 왕조가 바뀌어도 그 전통이 계승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경대승 도방의 사경호적 특성과 해체

무신의 집권 이후 주역이 되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의 3인 시대가 마감되고 경대승에 의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경대승은 무신의 지배를 끝내고 왕정을 복고시키려는 뜻을 지닌 인물이었다.

경대승은 무인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춘 가문의 출신이며 무신집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는 복고(復古)의 뜻을 품었다고 표현될 만큼 보수적이고 관직에도 욕심이 없는 순수한 무인정신의 소유자였다고 판단된다. 경대승은 병사 30여 명으로 군부의 일부를 장악하고 전릉 군사들로 하여금 기습적으로 정군을 살해하도록 하였다(김당택, 1999: 92).

경대승 집권 시기에 도방이 창설됨으로써 요인의 경호체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도방에 모인 인적구성이나 체계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조직화되었다는 점이다. 공적인 왕실의 체계가 요인을 지켜줄 수 없다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공적인 군부대나 왕실을 호위하는 공적인 금군 체계가 새로운 실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개인적인 위기감에서 사적 경호 기구인 도방이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왕실을 지키는 전릉부대와 중방이라는 무신집권의 본부가 있었지만 경대승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부대나 기구도 일치단결하여 실권자를 받들지 못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사정은 왕의 호위를 맡은 전릉부대의 내부 분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경대승의 도방은 자신의 신변을 지켜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무신들이나 왕실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배후 세력 및 도방의 세력을 키울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중방을 이룬 지휘관들이 경대승의 의도가 정치를 무신집권 이전으로 돌리킨다는 것이어서 환영할 수 없고 오히려 경대승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실은 이러한 위기감에서 도방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중방의 분위기에서 경대승은 왕실을 아우르고 중방과 타협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자세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경대승이 사병집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도방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으며, 무신집권자 중에서 경대승이 처음이었다. 여기서 도방(都房), 혹은 도방(盜房)은 1180년(명종 10년) 정월 개경일대에 도적떼가 어지럽게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방의 무사를 자칭했다. 관청에서 체포하여 가두면 경대승은 풀어주고, 풀려난 이들은 다시 약탈을 감행하였다. 1181년(명종 11년) 3월에는 도적의 무리가 국가의 창고인 대창에도 난입했다. 경대승이 다수의 도방무사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기반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들에 의해 도적행위나 불법이 횡행했던 것이다(이승한, 2001: 362-368).

경대승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기록이나, 재정을 어떻게 관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권을 잡은 사람은 곧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재산을 모아 권력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할만도 하지만 경대승은 관직도 거부하고, 재산을 모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문소연, 2007: 38).

경대승은 정권을 잡을 당시 표명했던 복고로의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가 죽은 뒤 도방이 그를 장사지내 주었고 그 후 도방에 소속된 자들이 난을 모의할까 두려워 먼 성에 유배시켰기 때문에 도방은 1182년(명종 13년) 경대승의 병사와 동시에 철저한 탄압을 받고 해체되었다(전태인, 2005: 92). 문소연도 이러한 사정을 시인하고 당시에 경대승이 처한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경대승이 창설한 도방은 공공성이 없는 사적인 기반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전적으로 경대승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사후에 도방도 함께 폐쇄되었다. 그러므로 도방은 어떤 개인을 위한 사적인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므로 이를 사적 경호제도로서 공적 경호제도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 전대의 어떤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혹은 어느 기간 동안 존립했던 제도적 특성을 가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Ⅳ. 최충헌 도방의 거듭남과 사경호적 위력

무신 쿠데타로 인한 잦은 정권의 교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고, 이러한 혼란 속에 최충헌(崔忠獻)이 등장하여 아우 최충수와 함께 이익민을 제거하고, 모든 적대 세력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차적으로 중방의 세력을 장악하여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시켰으며, 사원 세력을 억압하고 농민과 노비들의 봉기를 진압함으로써 권

력의 핵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최충헌 정권의 중심기관은 교정도감(敎定都監)이라는 막부였으며,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통하여 인사문제를 처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인사·재정·감찰권을 지닌 이 기구의 별감이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왕권은 무력화되고 왕은 형식상으로 존재하는 상징적 지위에 불과하게 되었다. 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국왕의 폐립을 자행한 최충헌은 자연히 주위에 적을 많이 두었고, 자신도 그 횡포를 잘 알고 있었기에 불의의 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 그에 따라 최충헌은 독재 권력을 지탱할 수 있는 무력기반으로서 자신의 신변 호위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이전에 경대승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도방을 부활시켰다. 그의 도방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란으로 인한 사태의 변화와 권력의 추이에 따라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4대에 걸쳐 계승되었고, 최 씨 집안의 정치적 몰락 이후에도 김준, 임연 부자에게까지 이어졌다. 박장규(2010)는 최충헌의 도방부활과 재건에 대하여 규모만 달라졌을 뿐 동질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전경숙(1997), 이승한(2003)을 비롯한 연구가들은 최충헌의 도방이 경대승의 도방에 비하여 설치 목적이 다르고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도방으로 재창출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최충헌이 자신의 문객집단에 대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양적인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국가 상비군을 자신의 문객집단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므로써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그 목적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집권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206년(희종 2년) 3월의 문객 수는 무려 3000여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 3000명의 문객집단이 바로 도방의 구성원이나 전체수를 3000여명으로 계산하면 매일 500명의 문객들이 번갈아가며 최충헌의 사저를 지킨 셈이다. 도방의 구성을 6번(六番)으로 나누는 것을 최충헌의 사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과 경비를 가늠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인원이 500명이었기에 전체 3000명을 6개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최충헌이 외출할 경우에는 모두 호위하도록 했는데 그 위상은 마치 전투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6번으로 조직된 문객집단이나 혹은 그 지휘부를 도방이라고 한 것이다(이승한, 2003: 263-264).

박장규가 최충헌의 도방을 공적경호 제도로 보는 견해는 최충헌의 도방이 경대승의 도방과는 달리 공적경호기관인 금군의 세력까지 제압하고 그의 정권유지의 핵심 기구로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설립동기가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자신의 세력이 도방에 집결되어 도방이 이미 국가를 통치하는 군사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최충헌은 도방으로써 국가 상비군을 장악, 통제할 수 있었다. 한편, 단순히 신변보호 목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조직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경대승의 도방이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며, 자가(自家)에 도방을 설치하였고, 경대승 도방의 유용한 점들은 취하고 폐단은 시정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체계화된 자신의 도방을 조직하였다. 아울러 군사 조직도 참고하였다고 추측되는데, 금군(禁軍)이나 중방 등의 정부 기구와 조화를 이루었다는 기록이나 주장은 없는 점으로 보아 오히려 조정이나 왕실과는 달리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짐작되어 사적 경호기구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최충헌 도방의 설립, 확장 과정과 별초군의 창설에 대해서는 전태인, 박용운, 김윤곤, 이관배 등의 연구가에 의하여 상세히 밝혀졌다.

최충헌 도방의 조직상의 특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6番 도방이다. 최충헌은 문무관·한량·군졸을 막론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을 불러들여 6번(番)으로 나누어 매일 교대로 그의 집을 수직(守直)하게 하였고, 출입 시에는 6개의 조직이 연합으로 호위하여 그 위세를 떨쳤다는 것이다. 최충헌의 6번 도방은 그의 아들 최우 때에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그 이후 가문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그 바탕에 내외도방(内外都房)으로 확장, 개편함으로써 최씨의 도방은 왕실의 권력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내외도방에 대하여 내도방은 최우가 거느렸던 사병으로 조직하여 그의 저택의 호위를 맡게 하고, 외도방은 부(父)의 도방을 계승하여 조직한 것으로 그의 친척과 기타 외부의 호위를 맡게 한 것으로 추측되며, 또 “내외도방을 각각 6번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전태인, 2005: 167).” 라고 하였다. 서방(書房)은 1227년(고종, 14년)에 최우가 신설한 문인 숙위(宿衛)기관으로, 도방 및 삼별초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서방이 설치됨에 따라 최우의 문객수가 많아, 3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도방에 숙위케 하였다(박용운, 1987: 437).

서방의 설치로 최 씨 집안의 숙위기관은 문무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무인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문인들의 안식처가 마련되었다. 문인들은 고사에 밝고 식견이 높아 정치자문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었다. 최 씨 집안의 사설경호 조직으로 도방과 서방, 가병이 있는 가운데 마별초가 창설되어 마별초는 도방과 함께 호위기관으로 기병과 보병의 양쪽 날개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²⁾ 최우는 사적인 무력장치로서 부(父)로부터 물려받은 6번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과 외도방을 조직하고,

거기에 마별초를 증설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조직을 새롭게 조직화한 것으로서 별초군으로 지칭되는 마별초와 삼별초, 지방별초가 있다. 여기서 ‘별초(別抄)’는 선봉대, 유격대, 별동대 등을 특별히 뽑아 조직했다는 뜻으로,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비상시국을 당했을 때 용감하고 충성심이 강한 자를 특별히 선발했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별초군은 기존의 병제가 유명무실화되는 무신집권기에 들어와 그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³⁾

1229년(고종 16년) 10월의 기사에 마별초가 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창설되었음이 분명하다. 최우가 집권한 시기가 고종16년이었음을 감안할 때 6년에서 16년 사이에 창설된 것으로 짐작된다. 고종16년 이전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그 성립의 배경이 정방 및 서방과 비슷한 점이 있다. 마별초(馬別抄)는 기병으로 조직된 특수부대이고, 최 씨 정권의 사병으로 신변보호 및 의장대의 임무를 다하면서 최우 이후에 최항, 최의 때까지 존속되었으나, 최 씨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해체되었다(이관배, 1988: 53-58). 이를 볼 때 사적인 경호가 공공성을 상실함으로써 단명하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삼별초는 고종 때에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분리 편성되고, 여기에 신의군(神義軍)이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본래 야별초(夜別抄)는 밤에 방법순찰이 목적이었으나, 뒤에 몽골에 잡혀갔다가 도망해 온 자들로 신의군이 구성된 후, 즉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군사와 경찰 그리고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삼별초 가운데 신의군은 대몽항쟁과정에서 적에게 포로가 된 적이 있었던 고려군들로 조직된 군대였기 때문에 몽고군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적개심이 애국의 심정에서 나왔다고 볼 때, 삼별초의 설치목적이 최 씨 정권의 호위,

2) 마별초와 도방의 조직상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마별초는 도방에 속한 특수부대였다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있는가 하면, 양자는 병행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출현의 시기가 서방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도방의 큰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 부속부대였다고 볼 수 있다.

3) 1173년(명종 4년) 조위종의 난을 토벌하기 위한 결사대로서 전봉별초를 특별히 모집하고 최충헌을 별초도령으로 삼은 것이 그 예이다. 최충헌의 묘지명에 의하면, 그가 지휘하던 전봉별초가 조위종의 난(亂)이 평정된 이후에 해산되고 최충헌은 본위의 별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에 전봉별초에는 전시에 임시적으로 조직된 별동대임을 알 수 있다. 고종 3년에는 거란이 잔류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을 때 적이 가까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군에서 각기 별초 100인과 신기 40인씩을 파견하여 싸우게 한 기사가 발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별초군은 점차 임시적인 편성이 아닌 상설부대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 특징 내지는 조직을 표시하는 글자를 덧붙인 마별초, 야별초, 삼별초는 최우에 의하여 조직된 상설부대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근, 2004: 82-85).

즉 정적의 제거와 농민, 천민의 봉기를 진압하는 데 있었지만 몽고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데로 더 큰 목적 수용의 장면도 찾을 수 있다. 집권자들은 삼별초를 강화도에서 육지로 파견하여 농민폭군을 진압하고, 몽고군의 침략을 방어 또는 격퇴시켰으며, 그들의 정권 유지에 삼별초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삼별초 중에서 집권자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정적 제거나 쿠데타 같은 정권장악 행위 등에 이용된 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 대부분은 항상 대몽항쟁의 대열에 투입되어 있었다. 수도가 강화에 있을 때 집권자들은 국내의 반정부세력보다는 몽고의 침략에 더 큰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에게 쿠데타나 정적 암살과 같은 역할보다는 대몽항쟁에 더욱 힘쓰기를 요구했던 것이다(김창호, 2006: 90-91). 이에 따라 삼별초는 고려인의 강한 저항정신으로 무장, 성장할 수 있었다. 오늘날 도방을 모르는 자들이 있지만 삼별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도방이 최 씨의 신변 호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데 대해서, 삼별초는 경찰, 전투 등의 공적인 임무를 띠었다. 6위가 담당해야 할 것과도 같은 임무를 맡은 삼별초라는 별개부대를 새로 조직해야 했던 것은 6위의 관군이 유명무실하게 된 증거이다. 한편, 삼별초가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적인 임무를 맡았다고는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최 씨의 사병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강화도로 천도한 최우 시대에 이르러서는 도방의 활동 영역도 확대되어 집정자의 경제 기반의 확대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이전에 도적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야별초는 비록 공병으로 설치되었지만 집정자에 의하여 사병의 역할도 감당하였다. 몽고의 침입 이후 야별초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그 입지가 두드러지고 이와는 반대로 도방은 약화되었다.

한편, 야별초 내지 삼별초는 친위대로서의 구실과 도성의 수비도 맡았다. 1253년(고종 40년)에 몽골 사신, 몽골대 등을 맞이하기 위하여 왕이 강을 건너 승천부의 새 대궐에 나아가 그를 영접하였을 때에 야별초 80명이 평복 속에 갑옷을 입고 뒤를 따른 바 있고, 1260년(원종 1년)에 충렬왕이 된 태손이 문·무 백관과 더불어 삼별초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제포에 나아가 몽골에 다녀오는 원종을 맞이한 바 있다(장정근, 1989: 14-15).

도방은 최 씨 집안의 집권을 가능하게 한 제도였다. 그들은 도방을 사적인 군사기구로 활용하였으나 실은 공적인 국가의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권을 장악하고 군 내부의 주요인물이나 무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도방의 역할을 담당케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인들과 더불어 문인으로

이루어진 서방까지도 학문적 식견을 발휘하여 최 씨 정권을 보좌하였던 것이다.

최 씨 도방 확장과 군사적 기반 확립은 경대승 도방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였다. 최충현과 최우 2대에 걸친 도방의 개혁과 확대로 막강한 세력을 발휘하여 황실의 권위와 공적경호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무력과 그 조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정권을 4대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V. 고려시대 공적·사적 경호와 현대경호학적 의미

왕실 호위조직인 금군과 무신집권자의 호위조직인 도방은 국왕과 무신세력 개인의 호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견룡을 비롯해 금군의 주요업무는 왕실 안의 숙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자고 근무하게 만든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 예측하지 못한 급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그들의 결단력과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생활하는 견룡과 같은 금군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곧바로 출동하는 위치에 포진하고 있어야했다(이민형, 이강문, 송상욱, 2007: 47). 이러한 의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왕은 견룡을 자신의 처소인 내정에 근무시킴으로서 그들에게 보다 강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 씨 정권을 유지하고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으로는 국가의 병권을 장악하는 한편 사적으로는 개인적인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다. 발명권, 발병권, 장병권의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려의 병권을 장악하는 방법은 병력지휘를 할 수 있는 장군직을 맡음으로써, 장병권을 이병부직을 통해 문무의 전주(銓注)를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사병세력을 군사지휘계통에 포열시킴으로써 장병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도방을 설치하는 최충현이 고려의 공적인 사병 내에 자신의 사적 무력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전경숙, 1997: 56). 이와 같이 무신의 호위조직은 무신 권력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사병조직으로서 권력자는 자신의 호위조직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비호해 주는 것이었다.

왕실 호위조직인 금군과 무신 호위조직인 도방은 국왕과 무신세력 개인의 호위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금군의 경우 국왕 직속의 시위부대로

서 공적경호 조직이지만 도방의 경우 최 씨 일가만을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 사병조직으로 사실 경호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군의 경우 국가 체계가 바뀌어도 국왕 시위부대로서의 명맥이 유지되었지만 도방 등 최 씨의 민간경호조직은 삼별초의 몰락과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이민영, 이강문, 송상욱, 김진환, 2008: 70)는 점은 경호제도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고려시대는 왕정국가로서, 왕의 친위조직으로서의 활동이 곧 공적경호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현대의 대통령 경호실, 경찰, 군과 같은 공경호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려시대의 친위조직인 금군과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을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왕이라는 지존한 위치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존엄성이나 책임감은 어느 편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요하다. 기타의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왕은 하늘이 낸 백성의 수호자로서의 중대한 상징적 존재이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와 국민의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무게를 동위 개념에 놓고 호위하거나 또한 경호라는 측면에서 모두 막중하며, 둘째, 경호조직에 있어서 고려시대는 금군이라는 포괄적이고 엄중한 군사조직이 있었으며, 현대에는 경호실 법령에 어김없는 경호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공통적이며, 셋째, 고려시대 국왕의 호위는 광범위한 공간과 시간적 무제한의 성격이 있으나, 오늘날 대통령 또는 국가 요인의 경호는 임기 내에 제한된 경호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국정 운영면에서 보완할 필요를 느낀다.

고려 무신집권시대의 사적 경호제도인 도방은 대상자가 무신집권자이며, 경호원도 유력자로서 충성을 맹세하고 행해지며, 대상자는 강제적 복종을 요구한다. 현대 경호에 있어서의 사적경호는 민간경호라고 하며, 경호원과 대상자 간에 경제적 계약이 성립되는 활동이다. 신변 안전과 재산의 보호가 주된 임무이며, 경호원은 일정한 자격자나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이다.

현대의 민간경호에서 보완할 문제점이 고려시대 사적경호를 참작할 때 발견된다.

사경호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시간과 공간의 틈을 메꿀 수 있는 법령이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민간 경호의 담당자들이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안녕을 담당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이에 대한 노력의 보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경호원의 역할과 기능면 있어서 최 씨 일가의 호위와 집안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다양하고 총체적인 역할 집단으로서의 경호작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떠오른다. 현대의 스토키, 가정폭력 등과 같은 신변보호 및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일반인 외국인들의 수행경호와 콘서트, 전시회, 예식장 등의 행사경비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비교할 때 근접성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제도 확립을 할 수 있다.

공적경호와 민간경호의 관계는 곽윤길(2010)의 연구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의 성격을 띤 경호경비란 경호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며, 그 대상자도 국가원수를 비롯한 요인이나 외빈으로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이지만, 사설민간경호는 주체가 영리기업이나 민간단체로서 고객의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같다면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조광래, 2013: 97). 고려 무신집권시의 도방이나 기타 호위기관은 사설경호경비에서 출발했으나 차츰 공공성을 띠어가며 국가의 위기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방어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공배완, 2008: 10).

무신 집권시대의 호위제도는 현대경호경비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현대경호경비와의 연관성을 찾는 이러한 과제는 시대와 활동의 본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어떻게 관련사항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난제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 중기의 위기 상황과 현대의 테러에 의한 위협 사태를 비교하여 동질의 것임을 파악하게 된다면 도방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이며, 이를 발전시킨 최충헌과 그의 자손 및 타성을 지녔던 김준과 임연에 이르기까지의 탁월한 리더십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현대의 경호경비 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존재하며 문화가 발달할수록 난해한 것임을 깨달을 때,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의 리더십의 특성은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고에 관련하여 현대의 민간경비영업법의 개선 문제를 사례로 들어본다.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몇 개의 사항을 보면, 첫째, 신고사항의 신고접수처 문제, 둘째, 교육에 관한 문제, 셋째,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문제, 넷째, 특수 경비원의 징의금지 문제, 다섯째, 경비원 배치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 있다(이영오, 2008: 275-278). 허가기관과 신고접수처를 설정해야 한다는 난점이나 교육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증가하는 것이 발전하는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며, 더욱 투철한 정신과 지혜로서 해

결해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고대사회에서 많은 문객을 거느리며 다스렸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고대사회에서 왕이나 관리와 접촉하는 민간인이라 그리 흔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업종의 신고는 특권층에서 도맡아 처리했을 뿐이기에 백성의 소원이 무엇인지 구중궁궐의 왕이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이다. 최충헌의 문객이 3천명이었다는 것은 그의 실질적 리더십을 짐작해 볼 만하다. 이러한 리더십 앞에서는 왕권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충헌은 국왕을 대신할 만한 지도력을 가졌던 것으로 인정할 만하다. 도방에는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그의 세력은 날로 성장했을 것이다. 직무교육상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경대승의 도방에서는 도방원이 약탈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관민의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최충헌의 도방원에 대한 비난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그의 도방은 아들 최우에 이르러 더욱 발전했으며, 실질적 국가 수호의 경지에 이르렀다.

Ⅵ. 결 론

고려시대 공적경호와 사적경호를 구분함에 있어서, 공적경호라 함은 왕실호위를 중심으로 하여 시위, 숙위, 친위군 등의 활동을 대상으로 했고, 사적경호는 무신집권기의 도방을 중심으로 가병, 서방, 별초군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시작되어 목종 때에 완성되었다. 그 개편의 방향은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의 확립이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건룡이며, 그들은 국왕의 지근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고 제도적인 위상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 무신집권시대에 사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사병집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도방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경대승의 도방은 자신을 따르는 군졸들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구성원들 중에는 건룡 출신도 있었으며, 의리상 모여든 무예가 출중한 무사나 경영에 유능한 친족도 있어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과 백성을 돕기 위한 약탈이 자행되기도 하여 조정과의 불화가 있었으며, 경대

승이 병사함에 따라 그의 도방도 해제되었다.

최충현은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확장,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게 되었다. 최충현의 6번 도방은 그의 아들 최우가 이어 받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최우는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마별초를 내세워 시위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반란군을 토벌하는 등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도방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격경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유지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도방의 주인 최 씨 집안으로 넘어가고, 화려하고 권위적인 특성만을 발휘하는 상징적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도방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군사 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진 것이었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오늘날의 이익 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의 경호가 무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다스려졌다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를 통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왕실 호위조직인 금군과 무신 호위조직인 도방은 국왕과 무신세력 개인의 호위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 부대였던 견룡을 포함한 금군의 주된 역할은 왕실 안에서 침식을 같이하며 숙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의도는 예측하지 못했던 급변화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그들의 결단력과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왕은 견룡을 자신의 처소인 내정에 근무시킴으로서 그들에게 보다 강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도방의 경호는 대상자가 무신집권자이며, 현대경호원도 유력자로서 충성과 복종이 요구된다. 현대 경호에 있어서의 사적경호는 경호원과 대상자 간에 금전적인 계약으로 맺어지며 책임을 수반하고, 신변안전과 재산의 보호가 주된 임무이며, 경호원은 일정한 자격자나 법인의 임원이 된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첫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고려시대는 집권자인데 비해 현대는 특정한 의뢰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구성원의 자격과 모집방법에 있어서 고려는 가명으로 지원하여 오는 병사나 일군을 모집했는데, 현대는 신체조건과 인성, 능력 등 엄격한 자격조건에 맞는 자를 선발하였다. 셋째, 역할과 기능면에서 보면, 고려는 최 씨 일가를

위하여 무예 과시, 정보수집, 차기무인집정의 옹위 등이었으나, 현대는 신변보호 및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일반인, 외국인들의 수행경호와 호송경비, 도청검색, 각종운동경기, 기계경비시스템 등으로 보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개인과 단체에 봉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공의 성격을 띤 경호경비란 경호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며, 그 대상자도 국가원수를 비롯한 요인이나 외빈으로서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사설민간경호는 주체가 영리기업이나 민간단체로서 고객의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

도방과 현대경호경비와의 연관성을 찾는 과제는 시대와 활동의 본질이 다른 상황에서 난점에 부딪칠 수도 있으나, 고려시대의 정치적 위기와 현대의 테러에 의한 위험 사태를 비교하여 동질의 것임을 파악한다면 도방제도가 매우 효과적인 제도였음을 인정할 수도 있다. 특히, 이를 발전시킨 최충헌 이하 그의 자손과 성씨가 다른 김준과 임연에 이르기까지의 탁월한 리더십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현대의 경호경비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존재하며 문화가 발달할수록 어려운 것임을 깨달을 때,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의 리더십의 특성은 미래지향적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군사조직을 새롭게 개편, 정비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병조직이 그러하였다. 최우는 사적인 무력장치로서 최충헌 때부터 만들어졌던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과 외도방을 조직하고, 거기에 마별초를 증설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조직을 새롭게 조직화한 것으로서, 별초군으로 지칭되는 마별초와 삼별초, 지방별초가 있다.

현대의 경호경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계승해야 할 정신과 용기와 지성이 필요하다면 무신집권시의 혼란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도방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본받을 만하다. 여기에 고려시대 경호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고려시대는 귀족과 평민의 갈등, 문신과 무신의 갈등이 극심하였고 왜적과 몽고족의 침입으로 소란한 시대여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그 문화가 이어졌다는 역사적 특징을 남긴 시대이므로 이 시대의 경호 및 그 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국내외적인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규만(2004). **경대승의 집권과 그 성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배완(2008).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한시민의식 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6호 01-17.
- 곽윤길(2010). **고려 무신정권 시기 호위조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7(2), 357-375.
- 김낙진(1994). **고려시대의 견룡군**,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낙진(2002). **고려 금군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당택(1987). **고려 무인정권 연구**, 최 씨 정권과 그 군사적 기반, 서울: 새문사.
- 김당택(1999). **고려의 무인정권**, 서울: 국학자료원.
- 김두현(2005). **경호학개론**, 서울: 경호출판사.
- 김우준(2012). **고려시대 민간경비제도 고찰**, 한국행정학회 1-12.
- 김윤곤(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 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61-102.
- 김창호(2006). **한국경호발달사**, 서울: 백산출판사.
- 문소연(2007). **경대승 집권기 도방의 성격**,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하(1973). **최 씨 정권의 지배기구**, 한국사, 7, 서울: 탐구당.
- 박용운(1987). **고려시대사(하)**, 서울: 일지사.
- 박장규(2010). **한국경호사**, 서울: 진영사.
- 송인주(1995). **고려시대의 견룡군**, 대구사학 49-1.
- 송인주(1997). **고려시대 금군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인주(2007).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서울: 일조각.
- 이경혜(2001). **고려 최 씨 무인정권기의 도방**, -최 씨 가, 도방, 가병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배(1988). **고려 무신집권기의 사병조직**,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형(2009). **고려시대 호위조직의 무예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무도학회 11(2), 357-368.
- 이민형, 이강문, 송상욱(2007). **고려 무신집권기 경호조직에 관한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85-94.
- 이민형, 이강문, 송상욱, 김진환(2008). **한국경호사강의**, 서울: 진영사.

- 이상철, 송상욱(2003). 고려시대 견룡군에 관한 사적 고찰, 용인대학교 체육과학연구논총 13(2), 1-12.
- 이상철, 송상욱(2004). 견룡군과 금군의 임무에 관한 사적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71-80.
- 이성진, 김의영, 이종환(2007).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413-429.
- 이성진, 조성진(2013). 고려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4, 233-258.
- 이승환(2001). 고려 무인 이야기(1)-4인의 실력자들, 서울: 푸른역사.
- 이승환(2003). 고려 무인 이야기(2)-최 씨 왕조(상)-, 서울: 푸른역사.
- 이영오(2008).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265-282.
- 장정근(1989). 고려 무인정권에 대한 연구현황과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1997). 고려 최씨 집권기의 도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태인(2005). 고려시대 무예활동을 통한 친위조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현(1992). 고려 2군 6위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광래(2013).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5호 87-124.
- 진단학회(1980). 한국사(중세편), 서울: 을유문화사.

【Abstract】

A comparison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of Koryo dynasty and modern security service

Lee, Sung-Jin

This stud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pa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urity service during Koryo dynasty, and compares it with the modern security service. Modern day security service's defini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was used to distinguish them. Given the different historical settings, it's difficult to argu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rvice during Koryo dynasty was clear, but it can be said that public security service was centered around palace guard and concerns the activities of protest, and military made for the relationship, and private security service was centered around power of DoBang and includes the activities of malingering, and Byolchogun,

During the early days of Koryo, protest, district military and soldiers who stay in the palace were all parts of a palace revolt and this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soldiers who stay in the palace was accomplished during King Seongjong's rule. The tradition of a palace revolt can find its roots in the middle military, and after the unification, a palace revolt was reformed into the king's palace revolt of second and the 6th along the course of establishing the nation's system. All of the changes stem from the reformation for consolidating the royal authority.

Gyung Dae Seoung wanted to protect himself and he slept with his army night and days and because of that, group of soldiers was created and it was called DOBANG. Some members were from dobang gyeonryong. The forced were powerful because it was gathered with a warriors with extraordinaire

martial arts and competent management. Most of the soldiers followed gyeong dae seung because they believed that he has a strong leadership and loves his people, and had a strong faith in him. However, the general gyeong jang had a belief that politics must be reverted to the previous so the relationships between jungbang wasn't smooth. Because of the economic operational problems, due to fraud committed by the mens under his command failed to maintain integrity and was criticised. The misconception also fed up with the emperor and the deepen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soldiers, his dobang was dismantled.

After he took over the dobang, for his personal safety and to strengthen his position he compensated gyeon dae seong's dobang and developed the 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extending the dobang Choi chung heon recruited many talented people to strengthen the military base, and also accepted the advice and expanded the power of Dobang. Choi Chung Heon thus consolidated his political gains by weakening the power of the king's army and adjusting the myth, which could've threatened his regime, and this was called Dobang number 6th. Dobang number six got even more powerful by his son named Choi woo, and after ruling, he expanded into a room, and a substantial reorganization of Dobang was developed. And then the creation of yabyeolcho also showed the effect to prevent the crisis.

Although the palace guards who were public security service of Koryo Dynasty was still maintained during the military rule era when the royal authority was incapacitated, it was only maintained to have a symbolic meaning as the actual authority including military power was with Choi, the master of Dobang, private security service group. Likewise, during the rule of Choi, private security service could reign over public security service, and the noteworthy characteristic of Dobang is that it assisted the private soldier groups to seize the military power by reorganizing and modifying military system.

Although both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can be found when comparing the guards of Koryo Dynasty with those of contemporary society, they have a similarity in terms of the essence of guards that they guarantee the safety of their clients. As for differences, the royalty of Koryo Dynasty and the pursuit of profit of contemporary society are in contrast, and contemporary guards

can be seen as the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and duty by free will, whereas guards of Koryo Dynasty were ruled with military coercion.

Key words : public guards, private guards, palace guards, Dobang, GyunRyong, Byulchokun.